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 즐거운 골프'를싣고 있습니다. 프로골퍼의 수준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른쪽 골반 뒤쪽으로 회전되어야

### ■ 테이크 백 이렇게

자랑스런 전남의 딸 신지애(20·하이마트)가 올 시즌 LPGA 마지막 대회인 ADT 웹피언십에서 우승, 상금 1백만달러를 획득하며 상금순위 랭킹 3위(비공식)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신지애는 올 시즌 국내 7개 대회, LPGA 3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거대한 아량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함께 플레이했던 선수들은 신지애의 흔들림 없는 샷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고,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도 신지애를 대서특필하며 LPGA의 새로운 여왕 등극에 대한 예상을 내놓았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에 우뚝 선 신지애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번 대회 후 인터뷰에서 영어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운동하기에도 벅찬 시간을 쪼개 영어공부를 한 신지애에게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156cm의 골프에 적합하지 않은 체형임에도 강한 임팩트와 정교한 아이언 샷, 컴퓨터 같은 퍼팅으로 약점을 극복한 신지애를 보며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도 골프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연습 없는 실력 향상은 없다. 부단히 연습장을 찾고 자신의 결점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상급골퍼로서 도약하는 비결이다.

이번 주 골프클리닉은 양미애(여·37·광산구 신장동)씨가 찾았다. 골프 입문 1년이 된 양 씨는 90대 후반의 핸디를 보유한 초급 골퍼.

김진철 프로와의 골프클리닉을 기다렸다는 양 씨는 어프로치부터 접경에 들어갔다. 김 프로는 양 씨의 어프로치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정된 샷을 구사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김 프로는 양 씨가 어프로치 어드레스에서 핸드퍼스트가 되지 않아 손목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프로는 어프로치에서는 핸드퍼스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손목을 사용하게 되고 공을 억지로 펴울리는 스윙이 된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핸드퍼스트 자세는 원풀과 클립이 일정 각도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클립헤드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원손으로 공을 친다는 기분으로 스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의 설명을 들은 양 씨는 훨씬 부드럽고 정확한 어프로치를 하게 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프로치가 좋아지자 양 씨는 아이언 샷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평소 7번 아이언으로 100m를 보내는 양 씨의 샷을 보면 김 프로는 코킹이 되지 않아 거리를 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양 씨가 어드레스에서 원 손목이 자연스럽게 클립과 각도를 이뤄야 하는데 클립과 일직선으로 그립을 잡고 있어 자연스러운 코킹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는 김 프로의 조언대로 어드레스에서 원 손목 각도를 조절하자 테이크 백에서 자연스러운 코킹이 발생하게 됐다.

코킹이 돼지 김 프로는 다운스윙을 할 때 클립헤드로 공을 때리려 덤비지 말고 클립 끝이 리드하는 스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는 이같은 동작을 익히기 위해 하프스윙을 권했다. 풀스윙을 하지 않고 하프스윙을 통해 그립 끝이 리드하는 스윙을 이해하게 된 양 씨는 새로운 골프스윙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여기에 테이크 백에서 오른쪽 골반이 직선으로 밀리는게 아니라 뒤로 회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을 타격한 후 손목 릴리스를 해줘야하는데 내밀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샷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핸드퍼스트가 안된 잘못된 어프로치(왼쪽)와 정확한 핸드퍼스트와 체중이동이 잘된 동작.

김 프로는 코킹과 엉덩이 회전, 릴리스의 3가지 요건을 항상 머리속에 떠올리며 스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드레스에서 머리 위치는 항상 공의 뒤쪽을 응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게 돼 역K자 모양의 바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머리 위치가 공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크 백에서 몸이 뒤비어지는 역 피봇 현상이 발생해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는 등 스윙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정·지도=김진철 (KPGA 프로)



테이크 백에서 오른쪽 골반이 밀린 잘못된 동작(왼쪽)과 회전이 된 잘된 동작.



머리가 공의 왼쪽에 위치한 잘못된 어드레스(왼쪽)와 공 오른쪽에 위치한 잘된 어드레스.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b>개업·성업 안내</b> 구독신청 및 배달하시고는—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b>참 고</b> 동구 궁동 구청 뒤 유기농소작점재배생산한야채사용 대표 조정순 ☎(062)222-1215	<b>풀잎문화센타</b> 동구 총장로3가 이프유후문 옆 여성전문직사대 실력있는강사진 편리한교통 대표 배지혜 ☎(062)234-5579
<b>싸리골식당</b> 동구 궁동 커플리센터 뒤 순대국밥, 머리고기국밥, 흥나물국밥 대표 김기창 ☎(062)222-0289	<b>자 바</b> 동구 황금동 제일국장 위 생과일쥬스전문 커피, 맥주 대표 이병노 ☎(062)234-9799
<b>연다리식당</b> 동구 금동 구시청천변쪽 길치조림, 생선구이, 한방백숙 주차장원비 대표 조오연 ☎(062)228-8400	<b>럭스클럽결혼정보</b> 동구 계립동 미사회 맞은편 2층 초혼, 재혼 신뢰와 믿음 책임을 갖고 사업가, 교사 공무원, 공기업, 의사, 판권사, 연금수령자 주선 대표 (062)527-6672
<b>실전클리닉 &amp; 즐거운 골프</b>	<b>실전클리닉 &amp; 즐거운 골프</b>
<b>진성데코빌</b> 서구 쌍촌동 백일 주유소 데코빌 디렉토리, 헬스케어, 헬스케어, 백화점, 차관, 차관 대표 이성우 ☎(062)373-4780	<b>서남매화센타</b> 동구 학동 천발빌로 남광주시장에서 화순쪽 활어 및 각종 해산물 산지 직송 대표 권정심 ☎(062)222-2799
<b>Reebook(염주점)</b> 서구 회정동 염주거리 광주은행 옆 축구 단체복 전문 대표 손석호 ☎(062)376-4519	<b>삼오필름</b> 동구 금남로3가 카톨릭센터 뒷골목 사진제작의 모든 것 업체를 사진가 각종 스토로 배경 대표 최영태 ☎(062)224-3575
<b>평화당구장</b> 동구 학동 평화맨션 3동앞 2층 서비스 좋은 당구장 대표 고광주 ☎(062)225-1197	<b>전원야구점</b> 북구 양산동 양지주택 송지트리뷴 건너편 놀이방, 주차장 애비 이구전문점 대표 정영옥 ☎(062)575-0903
<b>남원추어탕</b> 광산구 생암동 생암공원 정문 앞 추어탕(5,000원) 매생이탕, 해물모듬탕 대표 김백현 ☎(062)972-3824	<b>송죽골쌈밥</b> 동구 광산동 79-8 점심·저녁·제철음식, 김치찌개, 냉면, 냉면, 김치찌개 대표 오정숙 ☎(062)222-7004
<b>연다리식당</b> 동구 금동 구시청천변쪽 길치조림, 생선구이, 한방백숙 주차장원비 대표 조오연 ☎(062)228-8400	<b>꼼장어먹어 봤소</b>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정문 맞은편 꼼장어 먹어, 냉면, 해물주제찌개, 맛집, 등장주문 대표 김영숙 ☎(062)269-9133
<b>빛고을볼링센타</b> 북구 양산동 롯데슈퍼센터 2층 구비티 넓은홀 서비스제공 대표 김화석 ☎(062)224-4931	<b>삼화공인증개사</b> 동구 서석동 동구청 건너편 동산, 부동산 매매, 일선전문 대표 박화석 ☎(062)224-4931